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보조사 ‘요’의 분포와 변이형(變異形)

The Distribution and Variants of the Particle 'yo' in Korean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김유림

보조사 ‘요’의 분포와 변이형(變異形)

지도교수 유 필 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김 유 림

김유림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운섭 (인)

심사위원 안 순 태 (인)

심사위원 유 필 재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2년 2월

<국문 초록>

본고는 실제적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조사 '요'와 '이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요'의 분포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조사 '요'와 '이요'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조사 '요'와 '이요'는 한국어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존댓말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요'와 '이요'를 논의하고 이때 기존의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음운론적 관점을 포함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3장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요'와 '이요'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요'와 '이요'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4장에서는 구어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여 조사 '요'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조사 '요'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구어 말뭉치 용례를 활용한다. 구어 말뭉치는 <세종 말뭉치>와 <이민자 준구어 말뭉치>를 사용한다.

5장에서는 조사 '요'의 교체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 '요'의 이형태를 서로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는 조건변이형과 이형태들이 서로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나타나는 자유변이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요'의 조건 변이형으로는 [요], [뇨], [료]가 있고, 자유변이형으로는 '이요'가 있다.

6장에서는 조사 '이요'가 분포 가능한 환경적 조건을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요'와 '이요'의 교수법을 제언하였다.

본고의 정리는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요'와 '이요' 사용에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자유변이형, 요, 이요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방법 ····· 1

2. 연구사 검토 ····· 2

3. 이론적 배경 ····· 4
3.1. ‘요’의 정의 ····· 4
3.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4
3.1.2. 고려대 한국어사전 ····· 4
3.2. ‘이요’의 정의 ····· 5

4. ‘요’의 분포 ····· 6
4.1. 요1 : 종결어미와 결합 ····· 6
4.2. 요2 : 종결어미를 제외한 요소와 결합 ····· 9
4.2.1. 연결어미 뒤 ····· 9
4.2.2. 체언 뒤 ····· 11
4.2.3. 조사 뒤 ····· 13
4.2.3.1. 격조사 뒤 ····· 13
4.2.3.2. 접속조사 뒤 ····· 14
4.2.3.3. 보조사 뒤 ····· 14
4.2.4. 부사 뒤 ····· 15
4.2.5. 감탄사 뒤 ····· 16

5. ‘요’의 교체 양상 ····· 18
5.1. 조건변이형 ····· 18
5.1.1. 요 ····· 18
5.1.2. 뇨 ····· 19
5.1.3. 료 ····· 20
5.2. 자유변이형 ‘이요’ ····· 22

6. ‘이요’의 분포 조건 ····· 24
6.1. 음운론적 조건 ····· 24
6.2. 형태론적 조건 ····· 24
6.2.1. 체언 뒤 ····· 24
6.2.2. 부사 뒤 ····· 26
6.2.3. 조사 뒤 ····· 27
6.3. 통사론적 조건 ····· 28

7. 결론 33

표 목차

<표 1> 조사 ‘요’와 ‘이요’ 비교 ····· 34

1. 서론

1.1. 연구목적

본고는 실제적 언어자료인 말뭉치를 바탕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조사 ‘요’와 ‘이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들의 분포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이요’는 체언, 부사어 등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21년 2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었다. 조사 ‘이요’는 ‘냉면 1인분이요.’와 같이 선행어와 결합한 형태로 현대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나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조사 ‘요’와 ‘이요’의 개념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는 조사 ‘요’ 대신 ‘이요’를 넣어도 자연스럽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부자연스럽다. 한국어가 모어인 사람은 조사 ‘요’와 ‘이요’를 직관적으로 바꾸어가며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는 일상 대화에서 조사 ‘이요’와 ‘요’를 직관적으로 바꾸어가며 자유롭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요’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한국어 학습용 교재에도 ‘이요’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요’가 분포 가능한 환경을 찾아 정리하려고 한다. 본고의 정리가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요’ 학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조사 ‘요’와 조사 ‘이요’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사전을 바탕으로 조사 ‘요’와 ‘이요’의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 범위를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구어 말뭉치 용례를 활용하여 ‘요’의 분포를 정리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요’의 교체양상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 ‘이요’의 분포 조건을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고는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요’와 ‘이요’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 ‘요’와 ‘이요’는 주로 구어체로 사용되므로 구어 말뭉치 용례를 분석한다.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 말뭉치> 2007년 배포판, 2020.11월 수정판 그리고 영화, 드라마, 시트콤 대본을 모아놓은 <이민 준구어 말뭉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현대 구어 말뭉치 <세종 말뭉치> 2007년 배포판, 2020.11월 수정판, <이민 준구어 말뭉치>를 통틀어 <구어 말뭉치>라고 칭한다.

2. 연구사 검토

'요'는 한국어 구어에서 존대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형태소이지만 그간의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어학 개론서에서 다루어진 '요'에 관한 논의는 이관규(2002), 최재희(2004), 고영근·구본관(2008), 최형기·조창규(2013), 최형용(2016) 등이 있다.

이관규는 학교문법론(2002:147-148)과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2005:118-119)에서 '요'를 어절 성분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통용 보조사라고 보았다. 이것은 문장 맨 끝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모든 문장 성분에도 다 나타날 수 있어 매우 특이한 보조사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재희(2004:156-157)는 '요'는 주로 청자 대우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조사로서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요'는 반말의 문말어미에 결합하여 상대를 어느 정도 대우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또한 이 '요'는 문장의 여러 성분에 분포하여 청자 대우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159-160)은 보조사를 체언, 부사, 연결형, 다른 격조사 등에 두루 쓰이는 통용보조사와 주로 종결형 뒤에 쓰이는 종결보조사로 나누었다. '요'는 주로 종결형 뒤에 쓰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며 '요'의 경우 다른 격조사나 부사, 연결형 등에도 자유롭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종결보조사 중에서는 '요'만 활발하게 쓰이고 나머지는 그리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형기·조창규(2013:116)에서는 조사 '요'를 문장 끝에 붙는 종결보조사라고 보고 '요'를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최형용(2016:219-220)은 '요'를 문장의 마지막에 결합하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보았다. '요'를 보조사라고 보는 이유는 '요' 없어도 문장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조사 '요'를 문중에서도 쓸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 경우도 '요'를 빼도 문장의 문법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국어학 개론서는 대체로 '요'를 주로 문말에 붙어 청자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보았다.

'요'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논문으로는 李尙馥(1976)을 시작으로 김정대(1983), 이정민·박성현(1991), 윤석민(1994), 남수경(2001), 문병우(2002), 전태희(2017) 등이 있다.

李尙馥(1976)은 '요'를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 청자존대접미사로 보고 '요'의 분포를 형태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기능을 살폈다. 김정대(1983)은 '요'를 문중, 문말 어디에서나 쓰임이 가능한 청자 존대소라고 보고 '요'를 통사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기능을 살폈다. 이정민·박성현(1991)은 실제 발화 자료를 토대로 문법구조상 문중 '요'의 성질과 쓰임의 기능을 분석하고 논의했다. 윤석민(1994)은 담화적 차원에서 '요'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남수경(2001)은 통시적 관점에서 '요'의 쓰임이 확대되어 온 양상을 살펴보고 공시적으로 '요'가 어떤 분포와 기능을 갖는지를 문중의 '요'와 문말의 '요' 두 가지 부분에 걸쳐서 정리했다. 문병우(2002)는 '요'를 화용표지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고 문말에 위치하는 '요'와 문중에 위치하는 '요'의 문법범주는 둘 다 화용적 자질을 가진 첨사적 요소라고 하였다. 전태희(2017)는 '요'의 문법범주를 보조사로 보고 실제적 언어자료인 코퍼스를 활용하여 요의 분포와 기능을 살폈다. 전태희(2017)는 조사 '요'가 주로 구어에서 쓰이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문말 및 문중이라는 기준으로 '요'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요' 전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설명을 시도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행 연구에서 '요'는 현대 구어에서 문장에 두루 쓰이며 청자존대의 기능을 가진다는 공통된 주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요'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요의 분포에

대해서 다루고 이와 관련한 요의 기능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간 '요'의 연구에서 분포와 기능을 언급할 때 형태, 통사, 의미적 측면 외에 '요'의 음운론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이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요'를 다룬 연구는 정희창(2010)과 최형강(2014) 등이 있다. 앞의 전태희(2017)에서는 '요'를 논의하면서 '이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했다. 정희창(2010)은 선행어가 '명사'와 같은 한 단어일 때, 선행음이 모음일 때는 '요'가, 자음일 때는 '이요'가 실현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이요'를 '서술격조사+어미'의 결합이 재구조화 된 것으로 보았다.

최형강(2014)는 '이요'의 주제를 표시하는 보조사 '이'와 높임의 보조사 '요'의 결합으로 보았다. 체언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이요'가 아니라 '요'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 있으나 영형태소인 주제표지 '이'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제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가 출현할 수 있을 뿐이지, 이미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로 격조사나 다른 보조사가 존재한다면 '이'의 출현이 저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요'의 '이'는 서술격조사가 아니므로 후행하는 '요'는 높임을 표시하는 보조사일 뿐이지 어미 '-오'가 변이된 형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전태희(2017)는 '이요'를 '요' 앞에 매개 모음 '-이-'가 삽입되어 '요'의 수의적 이형태로 '이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했다. '요' 전체로 확대하여 생각했을 때는 '요'와 '이요'가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2'만 생각했을 때 체언 뒤에서 나타나는 요2가 체언이 그 자체로 서술어처럼 기능할 때, '요'와 '이요'가 마치 음운적 환경에 따른 이형태인 것처럼 음운적 환경에 따라 사실상 교체를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이요'를 다룬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요'와 '이요'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요'를 논의한 논문으로는 김지미(2019), 이소정(2019) 정도가 있고 '이요'를 논의한 논문은 없다. '요'와 '이요'는 한국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존댓말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요'와 '이요'를 논의하고 이때 기존의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음운론적 관점을 포함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요’와 ‘이요’의 논의를 위해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조사 ‘요’와 ‘이요’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고의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3.1. ‘요’의 정의

3.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조사 ‘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요 「조사」

1. ((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게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돈이 없어요.
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
잠이 안 오는걸요.
새싹이 돋는군요.
늑장 부리다가는 차 시간을 놓치게요?
언니, 나를 모르겠어요?
친구가 많이 아프던가요?

2.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방금요 그 말 아주 멋졌어요.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
어서요 읽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어요.
“주문하실래요?” “여기 볶음밥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조사 ‘요’를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요1과 그 외 형태소와 결합하는 요2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3.1.2.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기술된 ‘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체의 종결 어미나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듣는 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선생님, 저는요?
어서요, 어서 가요.

경수는 오지 여행을 갔지요?
당신이 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요, 맛있는 후식을 드리겠어요.

2.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문장의 중간에 쓰여 할 말을 고르거나 주저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듣는 이를 높이는 뜻이 있으며, '요'에서 억양이 올라간다.

저는요, 경재가요, 정말 좋아요.
제가요, 어제요, 학교에 가다가요, 순희가 불량 식품 사 먹는 걸 봤어요.

3. 합쇼체의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자신을 낮추어 듣는 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지금 갑니다요.
손님, 여기 있습니다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요'를 여러 가지 형태소와 결합하는 통용보조사로 보았고 문중에서 '요'의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합쇼체 뒤에서 조사 '요'의 쓰임도 인정하였는데 3번과 같은 형태는 현대 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2. 이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조사 '이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사」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따위의 뒤에 붙어)) 주로 발화 끝에 쓰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는 식당 의자에 앉자마자 "여기 냉면이요."라고 주문하였다.
여기 거스름돈이요.
"기름은 얼마나 넣을까요?" "가득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이요'를 '요'와 마찬가지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정의했다. 강현화 외(2016:69)는 보조사 '이요'는 보조사 '요'를 설명할 때 '선행어가 명사인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이요'를 붙이기도 한다.' 정도로 언급했다. 본고의 조사 결과 '이요'를 개별적인 품사로 보고 따로 정의해 놓은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일하다. 합쇼체 종결 어미와 '요' 결합형은 현대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형태이므로 본고는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문법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보조사 '요'와 '이요'의 정의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른다.

4. ‘요’의 분포

조사 ‘요’는 <구어 말뭉치>을 통해 분포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요1과 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요2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본고도 이를 따라 조사 ‘요’를 요1과 요2로 나누어 분포 양상을 살펴본다.

4.1. 요1: 종결어미와 결합

요1,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요’는 대체로 해체 어미와 결합하여 상대 높임 비격식체인 해요체로 쓰인다. 조사 ‘요’가 반말체 종결어미 해체 뒤에 붙으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상대에게 존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요1은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사이므로 문말에만 쓴다. (1)~(9)의 용례는 『어휘문법평정목록』 1급, 2급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 중 조사 ‘요’와 결합 가능한 것들만 모아 놓은 것이다. 『어휘문법평정목록』 1급 중에서 조사 ‘요’와 결합 가능한 종결어미는 ‘-고, -을까, -어’가 있다.[1] 모두 해체 종결 어미이다.

(1) A : 비가 안 <u>오고요?</u>
B : 아니 간간이 와요.

(손숙,·김승현의 여성시대 3,4부, MBC, 1996-03-07)

(1)은 종결어미 ‘-고’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2)
가. 헤밀턴양과 일 문제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나가도 <u>괜찮을까요?</u>

(나하나, 캠퍼스의 비망록3, 신세기코믹스, 1987)

나. 네, 집중 분석 드라마 여행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죠.
저부터 <u>할까요?</u>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9-20)

(2)는 종결어미 ‘-을까’의 이형태로 (2가)는 ‘-을까’, (2나)는 ‘-ㄹ까’가 조사 ‘요’와 결합한 용례이다

(3)
가. 뭐 이제 연말이 얼마 안 <u>남았잖아요</u> 그죠?

(한밤의 데이트, 1995)

나. 어유 한문을 이렇게 잘 <u>썼어요</u> 이거 한 번 봐 보세요.

(행복이 가득한 집, KBS2, 1995-01-08)

다. 우리가 가면은 나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공간이 넓은 걸 <u>좋아해요.</u>

(아침만들기, MBC, 1995-03-07)

---

1) 『어휘문법평정목록』 1급 중 종결어미 ‘-으세요’가 있다. ‘-으세요’는 ‘-으시어요(-으셔요)’의 준말인데 이미 ‘으셔+요’가 결합된 형태로 굳어져 버려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보조사 ‘요’를 뗄 수 없으므로 조사 ‘요’와 결합 가능한 종결어미 항목에서 제외한다.

(3)은 종결어미 '-아'의 이형태로 (3가)는 '-아', (3나)는 '-어', (3다)는 '-여'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어휘문법평정목록 2급 중에서 조사 '요'와 결합 가능한 종결어미는 '-는군', '-을게', '-지', '-는데', '-을래', '-네'가 있다. 모두 해체 종결어미이다.

(4)

가. 제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대충 정리가 되는군요.

(단소리 쓴소리, 명쾌한, 다수인물, 1995)

나. 그러니까 지금 소말리나 이런데 다녀오신 이후에 그 강아지가 굉장히 고생이군요.

(김한길과 사람들, MBC, 1994-12-04)

(4)는 종결어미 '-는군'의 이형태로 (4가)는 '-는군'과 (4나)는 '-군'이 조사 '요'와 결합한 형태이다.

(5)

가. 낼은 안 늦을게요.

(임성한, 보고 또 보고 6회, MBC, 1998)

나. 예! 전화드릴게요! 전, 엄마 모시러 가기로 해서, 먼저 갈게요!

(김성덕, 박선자, 남자셋 여자셋, MBC, 1998)

(5)는 종결어미 '-을게'의 이형태로 (5가)는 '-을게', (5나)는 '-ㄹ게'가 조사 '요'와 결합한 형태이다.

(6)

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못 한다는 거지요 물이 부족하니까.

(KBS 9시 뉴스, 1998-09-22)

나. 어떤 음식을 만드실 거죠?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2-04)

(6)은 종결어미 '-지'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6나)의 '죠'는 '-지'와 '요'의 축약형인데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는 '지요' 용례보다 축약형 '죠'의 용례가 더 많았다. 현대 일상 구어에서는 '지요'보다 축약형 '죠'가 더 빈번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가. 하영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걔도 오빠하고 똑같이 피해자예요…

(김지수, 영웅신화 17회, MBC, 1998)

나. 맛은 괜찮은 거 같은데… 레스피가 좀 틀린 거 같은데요?

(김지수, 영웅신화 17회, MBC, 1998)

다. 아주 근사한데요. 저거 단 하나밖에 없겠어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1-07,)

라. 김 수석에겐 '익명의 활동가', 변호사 이상의 '재판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재야에서 담당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던데요?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93년 인터뷰기사, 1993)

(7)은 종결어미 '-는데'의 이형태로 (7가)는 '-는데', (7나)는 '-은데', (7다)는 '-ㄴ데', (7라)는 '-던데'가 조사 '요'와 결합한 형태이다.

(8) 깨끗한 한 표 찍을래요.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91년 인터뷰기사, 1991)

(8)은 종결어미 '-을래'와 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이다.

(9) 야, 너무너무 깜찍하네요. 우리 성은 양?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6-28)

(9)는 종결어미 '-네'[2]와 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렇게 조사 '요'는 대체로 해체 종결어미와 결합하지만 (10)과 같이 간혹 하게체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10)

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손숙,·김승현의 여성시대 1,2부, MBC, 1996-03-07)

나. 근데 풀빵사장님 되보시니까 뭐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남자를 위하여, 1994-12-12)

다. 그럼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라도 있는가요?

(단소리 쓴소리, 명쾌한, 다수인물, 1995)

라. 실무협 회담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나 자구 수정은 많은가요.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91년 인터뷰 기사, 1991)

마.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밤과 음악사이, KBS, 1995-02-15)

바. 스타 치고는 굉장히 검소한 편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93년 인터뷰기사, 1993)

(10)은 하게체 종결어미에 '요'가 결합한 예이다. (10가)는 '-ㄴ가', (10나)는 '-던가', (10다)는

2) 종결어미 '-네'는 하게체 종결어미와 해체 종결어미가 있다. (9)의 '-네'는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해체 종결 어미로 흔히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

‘-는가’, (10라)는 ‘-은가’ (10마), (10바)는 ‘-나’와 조사 ‘요’가 결합했다. (10)에서 쓰인 하게체 어미 ‘-는가’, ‘-은가’, ‘-던가’, ‘-ㄴ가’, ‘-나’는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3)]

4.2. 요2: 종결어미를 제외한 요소와의 결합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요2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요1이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보조사라면 요2는 그 외 나머지 요소와 결합하는 보조사이다. 요1과 요2 모두 청자 존대의 기능을 가진다. 요1은 문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요2는 문말과 문중 모두 사용 가능하다. 요2가 문말에서 사용될 경우 소형문(小型文)[4)]으로 쓰인다. 요2가 문중에서 사용될 경우 청자 존대의 기능과 함께 부차적 기능으로 휴지 기능과 청자 주의를 끄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이소정 2019:14)

4.2.1. 연결어미 뒤

연결어미는 대부분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연결어미 뒤 ‘요’는 복합문에서 후행문이 생략되고 선행문만으로 발화가 끝났을 때 덧붙을 수 있으며, 선행문과 후행문이 도치되었을 때에도 선행문 뒤에 ‘요’가 덧붙어 쓰이기도 한다.(최정숙 2003:23) (11)~(12)의 용례는 어휘 문법 평정목록 1급, 2급 연결어미와 조사 ‘요’ 결합형의 용례를 모아 놓은 것이다.

(11)

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죠.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6-21)

나. 아저씨는 배가 나오셨잖아요. 주먹밥을 많이 드셨으니까요.

(밤과 음악사이, KBS, 1995-01-18,)

다. 오류동 : 한민국 어디가?
우이경 : 점심 먹으러요.

(서숙향, 대한민국변호사 6회, MBC, 2008)

라. 여지껏 저기 신혼여행을 못 가서요,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자를 위하여, 1995-01-09)

마. 제 동생이지만요 참 이상해요.

(한밤의 데이트, 1995)

바. 가족티에 넣을 사진 찍으려고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124, MBC, 2006-2007)

---

3) 국립국어원 한국어학습샘터에는 종결어미 ‘-나’를 조사 ‘요’와 결합한 형태인 ‘-나요’로 덩어리째 묶어 종결어미로 제시하고 있다.

4) ① 전형적인 문말 ‘요’는 ‘밥 먹었어요?’와 같이 종결어미 뒤에 쓰인 ‘요’이다.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저녁요?’와 같이 ‘종결어미+요’ 결합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요’가 문말에 쓰였으나 해요체 종결어미와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요’가 문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이런 경우도 문말이라고 본다.
② 소형문(小型文)은 실제 상황에서의 필요에 따라 완전문의 일부를 생략한 문장을 말한다.(구본관 외 2015:210)

(11)은 어휘 문법 평정목록 1급 연결어미에 조사 '요' 결합한 용례들이다. 연결어미 (11가)는 '-고', (11나)는 '-으니까', (11다)는 '-으러', (11라)는 '-아서', (11마)는 '-지만', (11바)는 '-으려고'가 조사 '요'와 결합했다. (11가,나,다,바)의 용례는 문말 '요'가 쓰였고, (11라,마)의 용례는 문중 '요'가 쓰였다. (11가,다,바)의 문말 '요'는 뒤의 서술어가 생략된 형태로 (11나)의 문말 '요'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가 도치되어 쓰인 과정에서 문말에 '요'가 붙은 형태를 보였다.

(12)

가. 친구라도 만나나 보죠. 아니면 저 와 있는 거 눈치 채고 피했거나요.

(정지우, 글로리아 12회, MBC, 2010-11)

나. 전화가 끊어졌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계좌 알아봤는데요. 최근 2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6억원이 입금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류용재, 한지훈, 개와늑대의시간 14회, MBC, 2007)

다. 이 책을 읽으면요, 어머니, 꿈꾸는 건 모두 이루어진대요.

(정지우, 가문의 영광 49회, SBS, 2008-2009)

라. 우리 반애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요 제가 너무 무능한 거 같아 화가 났어요.

(김진우, 이향희, 진수완, 학교2 34회, KBS2, 1999-2000)

마. 스테이크 하나 해주시구요. 고기 종잇장처럼 얇으면 안돼요. 두툼하게요. 네?

(김수현, 불꽃 11-12회, SBS, 2000)

바. 아저씨. 혹시 청소하다가요, 손목시계 혹시 못보셨어요?

(김규완, 닥터 깽 8회, MBC, 2006)

(12)는 어휘 문법 평정목록 2급 연결어미와 조사 '요' 결합형의 용례들이다. 연결어미 (12가)는 '-거나', (12나)는 '-는데', (12다)는 '-으면', (12라)는 '-으면서', (12마)는 '-게', (12바)는 '-다가'가 조사 '요'와 결합했다. 대부분 연결어미는 조사 '요'와 결합하여 문말 또는 문중에서 자유롭게 쓰인다. 그런데 간혹 요와 결합이 어려운 연결어미도 있다. 김정대(1983:142)는 요2와의 결합이 어려운 연결어미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3)

-(으)니, -(으)나, -(으)나마, -매, -므로, -는지라, -거늘, -거니, -건대, -관대, -거니와, -(으)려니와, -(으)며, -아, -아서, -(더)ㄴ바, -(으)되, -나니, -(으)ㄹ새, -거온

이소정(2019: 14)은 위 목록 중 '-(으)며, -건대, -아서'는 요2와의 결합이 충분히 가능하고 '-거온'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지 않아 현 시점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어 말뭉치> 조사 결과 연결어미 '-건대'와 '-으며'가 '요'와 결합한 용례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결어미 '-아서'와 '요' 결합형은 (14)과 같이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14)

스티브: 마들린 친구 스티브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 봤었는데요.

삼촌: 스티브? 아-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스티브: 마들린이 학교에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보이지 않아서요.

(옛날 옛적에, 윤승운, 예음, 1989)

본고에서 다시 정리하면 조사 '요'와 결합할 수 없는 연결 어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5)

-(으)니, -(으)나, -(으)나마, -(으)매, -(으)므로, -는지라, -거늘, -거니, -건대, -관대, -거니와, -(으)려니와, -(으)며, -아, -(더)ㄴ바, -(으)되, -나니, -(으)ㄹ새

위의 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연결어미 중 조사 '요'와 결합이 어려운 것들이다.

4.2.2. 체언 뒤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를 이르는 말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다. 체언은 모두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16)

가. A: 그럼 말야 내가 무지무지하게 큰 선물하나 딱 줄께 응?

B: 선물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7-12,)

나. 그러면 오늘요, 좋은 말씀 나누어주신 여러분께 드릴 상품 소개해 드릴께요.

(남자를 위하여, 1995-01-23)

다. A: 저는 20년 동안 월급장이 생활을 했는데 20년 동안 하니까 240번의 월급을 받은 것 같애요.

B: 240번요?

(남자를 위하여, 1995-01-23,)

라. 정사: 우산 얼마 줬냐?

명원: 만… 칠천 원요.

(임성환, 보고 또 보고 12회, MBC, 1998)

마. A: 그때 그 여자?

B: 누구요.

A: 이본씨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7-12.)

바. 음악이나 독서 취향 갖고 흉보지 말기요.

(여지나, 결혼 못하는 남자 16회, 2009)

(16)은 명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들이다. (16가)는 일반 명사 ‘선물’, (16나)는 ‘오늘’ 뒤, (16다)는 의존 명사 ‘번’, (16라)는 ‘원’ 뒤에 조사 ‘요’가 결합했다. (16마)는 고유명사 ‘이본’, 접미사 ‘씨’가 결합한 명사구에 조사 ‘요’가 결합했다. (16나)를 제외한 예문들은 문말에 조사 ‘요’가 쓰였다. (16가)는 어느 부분이 생략되었는지 유추하기 어렵지만 (16다)는 각각 ‘240번의 월급을 받았어요?’, (16라)는 ‘우산을 만 칠천 원 줬어요.’가 생략되어 담화 맥락상 유추 가능한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고 소형문으로 ‘240번요?’, ‘만 칠천 원요’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6나)는 문중에 조사 ‘요’가 쓰여 존대의 기능과 함께 쓰여 휴지 기능과 청자의 주의를 끄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체언은 아니지만 (16바)와 같이 동사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형 뒤에 ‘요’가 결합하여 존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17)

가. A: 네, 부인께서두 첫사랑은 있으시구요?
B: 저요? 저의 첫사랑은 지금 종철이 오빠뿐인데요.

(남자를 위하여, 1995-02-20,)

나. 여기요, 야, 육천 삼백원인데 오천원만 내면 어떻게 하니?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6-28,)

다. 근데요, 아저씨 저기요, 언니랑요 아저씨랑요, 결혼하면 딱 맞을 거 같애요.

(밤과 음악사이, KBS, 1995-01-18,)

라. A : 그때 그 여자?
B : 누구요. 이본 씨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7-12,)

(17)은 대명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17가)는 인칭대명사 ‘저’, (17나), (17다)는 지시대명사 ‘여기’와 ‘저기’, (17라)는 인칭대명사 ‘누구’와 조사 ‘요’가 결합했다.

(18)

가. 카레라이스하구 떡볶이 하나요.

(일상대화_식사중회사원3인)

나. 송자: 올해 몇이지?
금주: 스물 일곱요.

(임성환, 보고 또 보고 1회, MBC, 1998)

다. A: 지금 몇 살?
B: 저 지금요 중3 그러니깐 열 여섯 살. 열 여섯이요.

(아침만들기, MBC, 1995-03-10,)

라. A: 아드님만 둘이요?
B: 네, 아들만 둘이요.

(아침마당, KBS, 1995-02-20,)

(18)은 수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18가)는 '하나' 뒤에, (18나)는 '일곱' 뒤에 조사 '요'가 붙었다. (18다)의 '여섯', (18라)의 '둘' 뒤에는 조사 '이요'가 붙었다. 자음으로 끝나는 수사의 경우 (18나)의 용례와 같이 조사 '요'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18다,라)와 같이 보통 조사 '요' 보다는 '이요'를 붙여 쓴다. 여기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4.2.3. 조사 뒤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격조사, 두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조사, 앞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보조사가 있다.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는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조사는 명사형 뒤에 '요'가 결합한 방식과 같이 선행어와 조사의 결합형 뒤에 '요'가 붙어 존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4.2.3.1. 격조사 뒤

격조사는 '선행 형태소+격조사'가 조사 '요'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모든 격조사가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만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호격조사는 조사 '요'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관형격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관형어를 만드는데, 관형어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요'가 결합하면 체언과 결속이 깨져 문장이 어색해진다. 호격조사 '아, 야, 이시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단어 뒤에 붙어 부름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호격조사 '아, 야'는 손아랫사람이나 짐승을 부를 때 쓰이고[-높임], '이여, 여'는 정중하게 누군가를 부를 때 쓰이므로[+높임] 이미 높임의 기능을 구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요'를 쓸 필요가 없다. 보격조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는 말뭉치 용례와 실제 대화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19)

가. 아니 <u>제가요</u> 제가 여자 중에 키가 좀 크거든요.

(TV는 사랑을 싣고, KBS, 1995)

나. 어 뭐 서울의 찬가, 빛과 그림자, 이별 등 수많은 히트 곡을 작곡하셨던 <u>길옥윤선생님이요</u> 요즘 그 암과 투병 중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아침만들기, MBC, 1995-03-10,)

(19)는 주격조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19가)는 주격조사 '가', (19나)는 '이'와 조사 '요'가 결합했다.

(20)

가. 하나 더 내요. <u>라면을요.</u>

(김승현·손숙의 여성시대 3,4부, MBC, 1996-03-07,)

나. 그래서 편지 <u>하나를요</u> 더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손숙의 여성시대 3,4부, MBC, 1996-03-07,)

(20)은 목적격조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20가)는 목적격조사 '을', (20나)는 '를'과 조사 '요'가 결합했다.

(21)

가. 예 그래서 요즘에요 맞선 볼 때 고등학교때 사진을 가져가는게 필수라고 합니다.

(아침만들기, MBC, 1995-03-07,)

나. 안녕하세요. 이종힙니다. 자, 남자라는 이유로 속 깊은 얘기 다 털어놓지 못하실 때 많으시죠? 네, 생방송 '남자를 위하여'에서요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위하여, 1995)

다. 재료는 4인 기준으로요. 찐 밤 250g, 소고기 150g,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계란 두 개, 다진 마늘, 소금, 후추, 밀가루 약간이면 되겠구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94-12-03,)

라. 그러니까 하루종일 추운 날보다요 오늘처럼 일교차가 커지는 날 그래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김승현, 손숙의 여성시대 1,2부, MBC, 1996-05-01,)

(21)은 부사격조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21가)는 부사격조사 '에', (21나)는 '에서' (21다)는 '으로', (21라)는 '보다'가 조사 '요'와 결합했다.

4.2.3.2. 접속 조사 뒤

접속 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구실을 할 때 쓰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보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22)

가. 지금요 개조된 집을 보여 드리기 전에 편지를 보내 주신 이연수씨하고요, 그 청국장과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 남편 강정환씨를 모셨습니다.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2-04,)

나. 국희 : 저기요. 여기 (봉투 내민다) 안에 거스름 돈하고요, 빵하고.

(정성희, 국희 1회-20회, MBC, 1999)

다. 근데요, 아저씨 저기요, 언니랑요 아저씨랑요, 결혼하면 딱 맞을 거 같애요.

(밤과 음악사이, KBS, 1995-01-18,)

(22)는 접속조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22가), (22나)는 '하고', (22다)는 '랑'이 '요'와 결합했다. <구어 말뭉치>를 살펴본 결과 접속조사 '와, 과'와 '며'가 조사 '요'와 용례는 찾을 수 없었다.

4.2.3.3. 보조사 뒤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거나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보조사는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23)

가. 아, 저 잠깐만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7-19,)

나.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요 술이 체질적으로 안 받아요.

(김승현· 허수경의 여성시대 3부, MBC, 96-03-14,)

다. 자 삼월 십구 일부터요 수원지역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대권을 나눠 드립니다.

(김승현· 허수경의 여성시대 1,2부, MBC, 1996-03-14)

라. 저는요 작곡가나요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아침만들기, MBC, 1995-03-10,)

마. 어떠한 떡이든 제 손에 들어오면은요, 시각, 청각, 미각, 모두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로 변합니다.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2-04)

(23)은 보조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23가)는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 (23나)는 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 (23다)는 범위의 시작을 알리는 보조사 '부터', (23라,마)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과 '은'이 조사 '요'와 결합되었다. <구어 말뭉치>중 보조사 '은'과 '는'이 조사 '요'와 결합한 용례가 다른 보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4.2.4. 부사 뒤

수식언 중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는 조사 '요'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 앞에 놓이는데 관형사와 체언 사이에 조사 '요'가 들어가면 체언구의 결속이 깨져서 문장이 어색해진다. 용언, 부사, 일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만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24)는 문장에서 부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24)

가. 무근: 왜 기분이 안 좋아요?

한나: 설마요.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나요.

(권소연, 로맨스헌터 12회, tvN, 2007)

나. 아저씨 저 돈도 얼마 없거든요, 그냥 보내 주세요, 제발요.

(박정란, 노란손수건 52회, KBS1, 2004)

다. A :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B : 왜요?

(길창덕, 고집세, 기린원, 1986)

라. 아이,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8-16,)

마. 강민호: 너 도대체 누구야. 날 알아?
이성호: 잘 알죠. 아주 잘요.

(김형준, 용서는 없다, 2009)

바. 그런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놀 필요가 있을까요?

(아침만들기, MBC, 1995-03-07,)

사. 근데요, 아저씨, 마음을 예쁘게 가진 사람은 주먹밥도 예쁘게 한대.

(밤과 음악사이, KBS, 1995-01-18,)

아. 불쌍한 척, 귀연 척 한다고 한건 누군데요? 그리고요, 저도 쪽주면 쪽 팔리거든요.

(이선미, 장현주, 커피프린스 1호점 7회, MBC, 2007)

(24)는 부사와 조사 '요'가 결합한 용례들이다. (24가)는 '설마', (24나)는 '제발', (24다)는 '왜', (24라)는 '빨리', (24마)는 '잘'이 조사 '요'와 결합했다. (24바)는 접속부사 '그런데', (24사)는 '그런데'의 준말 '근데'가 (24아)는 '그리고'가 조사 '요'와 결합했다. 대부분 부사는 '요'와 결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단독형으로 쓰일 수 없는 부정(不定)의 안, 못, 접속(接續)의 및에는 결합하지 않는다.[5)]

4.2.5. 감탄사 뒤

감탄사를 청자에게 대답할 때 사용하는 경우 조사 '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감탄사가 혼잣말로 쓰일 경우 '요'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25)

가. A : 아니, 벌써 다 끝났답니까?
B : 아, 그럼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9-06.)

나. A :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B : 글쎄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6-14,)

다. A : 수영장에 가요!
B : 그래요!

(길창덕, 고집세, 기린원, 1986)

(25)는 청자에게 대답하는 말로 쓰인 감탄사가 조사 '요'와 결합한 용례이다. (25가)는 감탄사 '그럼', (25나)는 '글쎄', (25다)는 '그래'가 조사 '요'와 결합했다. 감탄사 '그럼'과 '글쎄'는 <구어 말뭉치> 나타난 '감탄사+요' 결합형 중 가장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었다. 감탄사는 뒤에 오는 문장과 관련 맺지 않으므로 감탄사와 결합하는 요는 문말 '요' 뿐이다.

---

5) 유필재(미간행), 『한국어의 구어』 참조.

정리하면 종결어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조사 '요2'는 연결어미, 체언, 부사, 조사, 감탄사에 결합하여 청자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 청자 존대 이외 조사 '요'의 기능으로는 문말에서는 소형문 형식으로 일상 대화에서 필요한 양만큼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데 쓰인다. 문중에서는 말을 강조하는 기능, 말을 끄는 기능으로 쓰인다.

5. ‘요’의 교체 양상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소로 바뀌는 현상을 교체 또는 변이라 하고, 바뀐 형태를 변이형 또는 교체형이라고 한다. 변이는 조건변이(조건교체)와 자유변이(자유교체)로 나눌 수 있다. 조건변이와 자유변이의 개념은 배주채(1996:55-58)와 유필재(2000:47-52) 등에 정리되어 있다.

배주채(1996:55-58)는 각 이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면 조건된 교체 또는 조건변이라 하고, 각 이형태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로이 나타나면 무조건적인 교체 또는 자유변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와 ‘가’는 두 가지 이형태가 앞 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구름이/ /참새가/와 같이 각기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므로 조건 변이 관계이다. 반면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에서 어간 [가지-]와 [갇-]은 둘 다 어미 ‘-고’ 라는 같은 환경 앞에 나타나므로 자유 변이 관계이라고 하였다.

유필재(2000:47-52)에서도 조건교체와 자유교체가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체형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해당 교체형이 나타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교체를 조건교체라고 한다고 하였다. 반면 자유교체는 이와 달리 동일한 환경에서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민현식(1999:32)과 이혁화(2002:68)도 자유 변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현식(1999:32)은 일부 이형태는 동일 환경에서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 자유변이(free variation) 현상을 보인다고 하며 ‘오거라, 오너라’가 모두 쓰일 수 있음을 예시로 들고 ‘-거라’와 ‘-너라’는 자유 변이 형태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혁화(2002:68)에서도 {가지-}는 대등적 연결어미 {-고} 앞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kaǰi](/가지고/), [kat>](/갇꼬/)의 두 이형태가 나타나고 {-를}도 형태소 {나} 뒤라는 동일한 환경 아래에서 [ril](/나를/), [l](/날/)의 두 이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화용론적 요인이나 문체적 요인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형태 교체의 조건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교체는 무조건적 교체(혹은 변이)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김유범(2001:15)은 일반적으로 이형태 교체에 참여하는 이형태들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라고 불릴 수 있는 형태들이 언제나 상보적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고’와 ‘-구’, 대격조사 ‘-ㄹ’과 ‘-를’이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와 ‘-구’,‘-ㄹ’과‘-를’을 각각 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조건변이는 이형태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상보적 분포를 가지는 변이를 말하고 자유변이는 이형태들이 서로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변이를 말한다. 보조사 ‘요’는 조건변이형과 자유변이형을 모두 가진다.

5.1. 조건 변이형

보조사 ‘요’의 조건 변이형을 파악하기 위해 지니 뮤직, 유튜브, 넷플릭스를 이용하여 ‘요’의 변이형을 파악하고 용례를 추출하였다.

5.1.1. 요

[요]는 ‘요’의 이형태 중 대표형이자 기본형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면 ‘요’가 본래 발음대로 [요]로 소리 난다.

(26)

가.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문세, 난 아직 모르잖아요, 1985)

나.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2020)

다. 바람에 날린 동그란 저 모자 달리기를 하나, 왜 서둘러 시계톱니처럼 똑같은 모퉁일 돌아돌아 뛰네요. (아이유, Modern Times, 2013)

라. 계속되는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임다솔, 기상청, 오늘 날씨, 2021.-04.-08.)

마.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 차이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임다솔, 기상청, 오늘 날씨, 2021.-04.-08.)

바. 저기요 제가요 그쪽을 좀 좋아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요.

(저기요, 소영이, 2015)

사. 왜요 왜요 왜요 너 없인 왜 나는 안되나요 도대체 왜요 왜요 왜요

(방예담, 왜요wayo, 2020)

아. 아 진짜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Oh really Oh really

(아 진짜요. (Oh really.) 엔플라잉 (N.Flying), 2020)

(26)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요]로 소리 나는 용례이다. (26가)는 종결어미 '-아', (26나)는 '-어', (26다)는 '-네'뒤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요]로 소리 난다. (26라)는 연결어미 '-는데', (26마)는 '-고' 뒤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요]로 소리 난다. (26바)는 대명사 '저기', 주격조사 '가' 뒤에, (26사)는 부사 '왜' 뒤에 (26아)는 감탄사 '진짜' 뒤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요]로 소리 난다.

5.1.2. ㅛ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하면 연음되거나 'ㄴ'이 첨가되어 [뇨]로 소리 난다.

(27) 앞에서는 엄마를 들들 볶았고, 여기서는 엄마를 부려먹거든요? [부려먹거드뇨?]

(금쪽같은 내새끼 시즌 2, 31화, 채널A, 2020-07-30)

(27)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했을 때 연음되어 소리 난 용례이다.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할 때는 표준발음법(표준어규정) 13항[6]에 따

6) 표준어규정 제 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라 (27)과 같이 연음되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그러나 현대 구어에서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했을 때, 이를 표준발음대로 연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ㄴ첨가로 [뇨]로 발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ㄴ첨가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ㅣ’나 ‘j’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28)

가. 무시험 입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라는군요.[걱정이라는군뇨]

(ebs 글로벌뉴스, 대입 '무시험' 노르웨이, '학력 저하' 우려도, 2021.04.13)

나. 기자 : 남의 시선은 느끼지 않습니까?
여성 : 아뇨.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조커든뇨]

(MBC 뉴스데스크 1994.09.17)

다. 상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수증기 영상부터 보시면요.[보시면뇨]

(임다솔, 기상청, 오늘 날씨, 2021.-04.-08.)

라. 저기요 제가요 그쪽을 좀 좋아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요[아니지만뇨]

(저기요, 소영이, 2015)

마. 남자는 남자는요[남자는뇨]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최고다 당신, 김혜연, 2015)

바. 간호사님 저희 아빠는요?[아빠는뇨?] 우리 아빠 좀 어때요? 강수일 환자요.

(김사경, 하나뿐인 내편, KBS2, 2019-03-09)

사. 그럼 팝도 가능하시죠? 아 그럼요.[그럼뇨]

(유희열의 스케치북, KBS2, 2016-02-26)

(28)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어 조사 ‘요’가 [뇨]로 소리 나는 용례이다. (28가)는 종결어미 ‘-는군’, (28나)는 종결어미 ‘-거든’, (28다)는 연결어미 ‘-면’, (28라)는 ‘-지만’ 뒤에, (28마,바)는 보조사 ‘는’ (28사)는 감탄사 ‘그럼’ 뒤에 조사 ‘요’가 결합되어 ㄴ첨가로 [뇨]로 소리가 난다. 이러한 용례는 현대 구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1.3. 료

‘ㄹ’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할 경우 연음되어 [료], ㄴ첨가 후 유음화로 [료],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날 수 있다. 우선 표준 발음은 ‘ㄹ’로 끝난 형태소가 연음되어 [료]로 소리가 나는 방법이다. 그런데 본고의 조사에서 ‘ㄹ’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 결합형이 연

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음되어 소리 나는 용례는 찾지 못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ㄹ’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했을 때 소리 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ㄴ첨가 후 유음화 현상으로 [료]로 소리 나는 방법, [요] 그대로 소리 나는 방법이 있다.

(29)

가. 아영: 나리.. 천주교도 맞으십니까?
김진: 글쎄요, 맞을걸요.[맞을걸료]

(한증애, 조은이, 이남규, 조선명탐정, 2017)

나. 저희가 제일 잘할걸요[잘할껄료] 모든 팀 다 통틀어서

(강철부대 4회, 채널A, 2021-04-13)

(29)는 어미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ㄴ’이 첨가된 후 유음화 현상으로 [료]로 소리 나는 용례이다.
(30)은 [요]가 그대로 발음되는 방법이다. 특히 노래 가사에서 [요] 소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30)

가. 처음부터 그대인걸요[그대인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행복을 알려준 그대인걸요.[그대인걸요.]

(그대인걸요, 코뿔소 &더 데이지, 2016)

나. 처음부터 내 사랑인걸요[사랑인걸요] 차가운 내 맘에 따스히 비추죠.

(사랑인걸요, 태연,써니, 2009)

다. 그댄 알고 있을까요 이런 내 맘을요[맘을요] 너무 행복하다 못해 슬퍼지려 해요.

(영원+1, 워너원, 2018)

라. 평생을 믿고 따를게요 우리가 만들어갈 새 인생을요[인생을요]

(반쪽에게, 거북이, 2006)

마. 꿈 속 그림 같은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눈물 속에서 피어난 이슬 같은 사랑을요.[사랑을요.]

(사랑해본적있나요 김유경, 2010)

바.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걸요.[보고픈걸요.]

(채희, 바람의 소원, 2016)

사. oh 난 그런걸요[그런걸요] 늘 난 그댄걸요.[그댄걸요.]

(홍대광, 티가나요, 2015)

(30)은 ‘ㄹ’로 끝나는 형태소와 조사 ‘요’ 가 결합한 조사구가 있는 노래 가사이다. 노래 가사의 경우 대부분 ‘요’로 발음되었다. 이렇게 ‘요’ 결합형을 발음할 때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요’가 분명히 발음되는 것은 연접 음소 현상(juncture phoneme)과 관련이 있다. 연접

(juncture)은 언어 문법 단위에서 휴식이나 일시 중단을 가리키는데 음운론적 경계 절 또는 문장 음운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Mehmet Demirezen 2019:197-208) ‘ㄹ’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할 때, 다른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할 때보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ㄹ’로 끝나는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할 경우 수의적으로 [료]와 [요]로 소리날 수가 있다. 연음으로 발음되는 [료]는 표준 발음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없었다. 일상생활에서는 ㄴ첨가 후 유음화에 의해 [료] 발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요]로 소리 나는 경우는 비교적 천천히 말할 때 또는 의식적으로 발음을 정확히 하고자 할 때이다.

5.2. 자유 변이형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요’를 제외하고 ‘이요’도 있다.

(31)

가. 그는 식당 의자에 앉자마자 “여기 냉면이요.”라고 주문하였다.

나. 여기 거스름돈이요.

다. “기름은 얼마나 넣을까요?” “가득이요.”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31)은『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조사 ‘이요’의 용례이다. (31가)는 ‘냉면’이 (31나)는 ‘거스름돈’이 (31다)는 ‘가득’이 조사 ‘이요’와 결합하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이요’는 ‘이요’를 쓸 수 있는 환경에 조사 ‘요’로 교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2)

A: 어느 분이요

B: 저기 저 분요

(32)는 의존명사 ‘분’ 뒤에 각각 조사 ‘이요’와 ‘요’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A의 ‘이요’가 ‘요’로 B의 ‘요’가 ‘이요’로 교체되어도 문장의 의미는 같으며 형식적으로도 문제없이 자연스럽다.

(33)

가. A: 그럼 말야 내가 무지무지하게 큰 선물하나 딱 줄께 응?

B: 선물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1998-07-12)

나. 그 중에서, 그 짧은 머리도 맘에 들고, 약간 그 웨이브 있는 머리요, 그 머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마당 토요와이드, KBS, 1995-01-07)

(33)은 제 4장 ‘요의 분포’ 중 체언과 조사 ‘요’ 결합형 부분이다. (33)에서 조사 ‘요’가 들어갈

자리에 ‘이요’로 교체해 보았을 때 (33가)는 자연스럽지만 (33나)는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이요’가 들어갈 자리에는 항상 ‘요’가 교체될 수 있지만 ‘요’가 들어갈 자리에 항상 ‘이요’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조사 ‘요’가 ‘이요’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정한 조건에서 ‘이요’는 ‘요’와 동일(同一)한 분포를 보이는 자유 변이 관계이며 ‘이요’는 ‘요’의 자유 변이형이다. 조사 ‘요’와 ‘이요’가 공존하는 분포 환경에 대해서는 6장에서 설명한다.

6. ‘이요’의 분포 조건

조사 ‘이요’는 조사 ‘요’의 자유변이형이다. 조사 ‘이요’는 특정 환경에서만 조사 ‘요’의 자유변이형으로 쓰인다. 본 장에서는 ‘요’와 ‘이요’가 동일하게 분포 가능한 환경적 조건을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6.1. 음운론적 조건

보조사 ‘이요’는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서 분포할 수 있다.

(34)

가. (택시 안) 역삼동이요 기사님!

(남지연, 박은정, 조진국, 소울메이트 6화, MBC, 2006)

나. 아주머니, 여기 해장 둘이요!

(김정수, 그대그리고나 21화, MBC, 1997)

다. 꼭 전화주세요. (돌아서려다가 다시 달려들며) 꼭이요!

(구선경, 이선영, 백설공주, 01-10화, KBS2, 2004)

(34가)는 명사 뒤, (34나)는 수사 뒤, (34다)는 부사 뒤에 보조사 ‘이요’가 결합했다. ‘이요’ 앞의 선행어는 모두 다른 품사이지만 자음으로 끝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6.2. 형태론적 조건

보조사 ‘이요’는 ‘요’와 달리 종결어미, 연결어미 뒤에 붙어 쓸 수 없다. 보조사 ‘이요’가 결합할 수 있는 품사로는 체언과 부사, 조사가 있다.

6.2.1. 체언 뒤

문장에서 주체 구실을 하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모두 조사 ‘이요’와 결합이 가능하다.

(35)

가. A: 근데 이 떡을 최지원씨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B: 떡이요? 저는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쪄 먹든지, 아니면은 또 아이들 떡볶이 같은 거 해주던지 그래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2-04)

나. 여기.. 정민씨 휴대폰이요.

(김상미, 김석윤, 신원효, 이상용, 올드미스다이어리 57회, KBS2, 2004-2005)

다. 친구: 인간성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이라두, 운우지정 나누시며 사세요!
홍여사: 어머나…세상에…운우지정이요?

(김정수, 그대그리고나 28화, MBC, 1997)

라. 아, 저는요, 손지영이요.

(일상대화_미팅, 2001)

마. 어른 한 명이랑 아동 한 명이요.

(이소정, 이영철, 조성희, 지붕뚫고하이킥, 122회, MBC, 2009-2010)

바. 여자1: 어머 따님들하고도 이런 활동도 하시나봐요?
여진: 한 달에 한 번이요.

(오수연, 네 자매 이야기 1-10회, MBC,, 2006)

사. 지훈: 아, 의리없게 이러시깁니까? 담당검사가 누굽니까?
박형사: 강충기 검사님이요..

(권음미, 로열패밀리 9회, MBC, 2011)

아. 아버님, 어머님, 애들 왔어요 애들, 고모네 애들이요!

(최윤정, 웨딩드레스 01회, KBS2, 1997-1998)

(35)은 명사와 조사 '이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35가)는 일반명사 '떡', (35나)는 '휴대폰', (35다)는 운우지정 뒤에 조사 '이요'가 붙었다. (35라)는 고유명사 '손지영' 뒤, (35마)는 의존명사 '명', (35바)는 '번'뒤에 조사 '이요'가 붙었다. (35사)는 명사 '검사'와 접미사 '님'이 결합한 명사구 뒤, (35아)는 명사 '아이'의 준말 '애'에 접미사 '들'이 결합한 명사구 뒤에 조사 '이요'가 붙었다. 조사 '이요'는 조사 '요'와 달리 문장 끝에서만 붙어 실현된다.

(36)

가. 오승아씨 이쪽이요.

(김은숙, 온에어 15화, SBS, 2008)

나. 대협: 정문 말고 나가는 문이 또 있나?
준희: 네… 저쪽이요.

(강은경, 고스트 14회, SBS, 1999)

다. 이 문제의 발단이잖아요. 당신이요! 당신이 그 송기자랑 우리 은지, 선보게만 안했어도 이런 사단이 일어났겠어요?

(조정선, 솔약국집아들들 21회, KBS2, 2009)

(36)은 대명사 뒤에 조사 '이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36가), (36나)는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뒤, (36다)는 인칭대명사 '당신' 뒤에 조사 '이요'가 붙었다. <구어 말뭉치>에 있는 지시대명사와 조사 '이요' 결합형 중에서는 '이쪽'과 '저쪽'이 조사 '이요'와 붙어서 자주 사용되었다.

(37)

가. 칼국수 둘이요

(일상대화_대학생4인잡담, 2001)

나. 공일육쓰세요? 칠이요.

(일상대화_미팅)

다. 지금 몇 살?
저 지금요 중3 그러니깐 열 여섯 살. 열 여섯이요.

(아침만들기, MBC, 1995-03-10)

(37)은 수사 뒤에 조사 '이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37가)는 수사 '둘', (37나)는 '칠', (37다)는 '여섯'과 조사 '이요'가 결합했다. 보통 조사 '이요'가 올 자리에는 조사 '요'가 와도 상관없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수사의 경우 조사 '요'보다는 '이요'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어 말뭉치>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수사와 조사 '요'가 결합하는 경우는 한 건 있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이요'가 붙었다.

6.2.2. 부사 뒤

부사 뒤에서도 조사 '이요'가 분포할 수 있다.

(38)

가. 만호: 희진이한테는 연락왔어?
지석: 아직이요.

(설준석, 마들렌, 2002)

나. 장우씨 제발! 제발이요!

(최유정, 아이싱 11회, MBC, 1996)

다. 지수: 그럼 뭐 하러 날 불러내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석원: (쑥스럽게 웃으며) 그냥이요.

(김민식, 얼굴없는 미녀, 2004)

라. 꼭 전화주세요. (돌아서려다가 다시 달려들며) 꼭이요!

(구선경, 이선영, 백설공주 1-10회, KBS2, 2004)

마. 경민: (영화만 보며) 요즘 진영씨 어떻게 지내.
영우: (어색하게 웃으며, 영화 보며) 그럭저럭이요.

(노희경, 고독 8회, KBS2, 2002)

바. 영규: 나머진 언제까지 해줄건데?
동식: …곧 해드릴께요… 네, 곧이요.

(김정수, 그대그리고나 10화, MBC, 1997)

사. 영준: 누구랑이요? 자영 : 조민주 사장 내외랑요...

(박정란, 노란손수건 36회, KBS1, 2003)

(38)은 부사 뒤에 조사 '이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38가)는 '아직', (38나)는 '제발', (38다)는 '그냥' 뒤에 조사 '이요'가 붙었고, (38라)는 '꼭', '그럭저럭', (38바)는 '곧', (38사)는 '랑' 뒤에 조사 '이요'가 붙었다. 조사 '이요'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만 결합하므로 접속부사와는 결합이 어렵다. 그 외 대부분 부사는 '이요'와 결합하여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단독형으로 쓰일

수 없는 부정(不定)의 '안', '못', 접속(接續)의 '및' 에는 조사 '요'와 같이 '이요'가 결합하지 않는다.

6.2.3. 조사 뒤

조사 '요'는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모두 결합 가능하다. 그러나 '이요'는 보조사 뒤에서만 결합이 가능하고 보조사 중에서도 붙을 수 있는 형태소가 한정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자음으로 끝나는 보조사는 다음과 같다.

(39)

은, 는, 는커녕, 은커녕, ㄴ커녕, 들, 란, 만, 뿐, 을랑, 일랑, ㄹ랑, 인들, ㄴ들, 커녕, 토록, 곧, 서껀

<구어 말뭉치> 용례를 살펴본 결과 (39)중에서 '이요'와 결합한 보조사는 '만' 뿐이다. 보조사 '뿐'과 '이요' 결합형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오래된 작품에서 하오체가 잘못 표기된 형태로 사용된 용례들이었다. 따라서 '이요'와 결합 가능한 보조사는 '만'밖에 없다. <구어 말뭉치>에 조사 '만'과 조사 '이요'가 결합하여 쓰인 용례는 아주 많다.

(40)

가. 양파는 빼고 <u>머스타드만이요!</u>

(손은혜, 어느 멋진 날 1회, MBC, 2006)

나. <u>30분만이요</u>, 아니, 10분<u>만이요.</u>

(정지우, 글로리아 12회, MBC, 2010-11)

다. 딱 <u>한 번만이요</u> 아저씨.

(이금림, 푸른안개 1-20회, KBS2, 2001)

라. 상혁 (무릎 꿇는) 한번만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없으세요? <u>한 번만이요.</u>

(김은희, 운은경, 겨울연가 1-10회, KBS2, 2002)

마. 잠깐. 아빠 <u>잠깐만이요.</u>

(현고운, 1%의 어떤 것 1회, 드라맥스, 2016)

바. <u>잠깐만이요 </u>5분만 더요.

(손은혜, 파리의연인, SBS, 2006)

사. 진호: 들어오실까요?
인희: <u>잠깐만이요.</u>

(김희주, 이새인, 개인의 취향, 6회, MBC, 2010)

(40)은 조사 '만'과 조사 '이요'가 결합한 용례이다. (마,바,사)의 '잠깐만이요'는 <구어 말뭉치>에서 조사 '만'+ 조사 '이요' 결합형 중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형태이다. 특이하게 '만'은 자음으로 끝나는 특수조사 중 유일하게 조사 '이요'와 결합하는 보조사이다. 이는 '만'의

형태적 특성이 체언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 ‘만’은 보조사, 의존명사 두 가지 품사로 통용되어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 ‘만’은 의존명사로만 쓰였다.

허웅(1975:274)에서는 ‘만’을 매인이름씨라고 기술했다. 허웅(1975:274)에 따르면 매인이름씨의 특색은 홀로 서는(자립하는) 힘이 없고, 반드시 그 앞에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풀이씨의 매김꼴, 매김씨, 임자씨(토씨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가 와야 한다고 했다. 매인이름씨는 의존명사를 가리키는데 '만'을 전형적인 매인이름씨라고 기술하였다.

(41)

가. 道애 나ᅀᅡ갈 만 ᄒᆞ라 (능엄경언해 6 :108)

나. 하ᄂᆞᆯ해 날 만 커니와 = 止於生天커니와 (능엄경언해 8 :73)

다. 이 地主ㅣ 衆生ᄋᆡ그에 一切 즐거ᄫᆞᆫ 것 布施ᄒᆞᆯ 만 ᄒᆞ야도 功德이 그지 업스니 (석보상절 19:4)

(41)의 예문의 ‘만’은 각각 ‘나ᅀᅡ갈’, ‘날’, ‘布施ᄒᆞᆯ’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 수식어들은 모두 관형어이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품사는 체언 밖에 없다.

이현희(2014:2-3)에서도 중세국어에서 ‘NP만 NP’ 구성의 예들은 ‘NP만’ 구성의 ‘만’이 명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인다고 하고 16세기에 들어 ‘만’이 문법형태화를 경험하여 명사에서 조사로 성격이 바뀐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조사 ‘만’이 15세기에는 의존명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큼, 정도, 한도’의 의미를 가진 ‘만’은 지금은 보조사이지만 중세국어에는 의존명사였다. 그래서 지금도 보조사 ‘만’은 의존 명사의 기능이 남아있다. 이러한 보조사 ‘만’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에도 보조사 ‘만’ + 보조사 ‘이요’ 결합은 예외적으로 ‘명사’ + 보조사 ‘이요’의 결합과 같이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정리하면 조사 ‘이요’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과 부사, 보조사 ‘만’과 결합할 수 있고 ‘이요’의 분포는 문말에서 실현된다. 조사 ‘이요’의 형태적 특징은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요1보다 종결어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요2의 분포와 관련이 있다.

6.3. 통사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이요’를 포함한 말뭉치 용례 174건을 조사했다. 표본으로 추출한 말뭉치 용례는 <세종(2007년 배포판) 원시구어말뭉치>와 <이민 준구어 형태구어말뭉치>이다. <이민 준구어 원시 말뭉치> 검색 결과 조사 ‘이요’가 포함된 용례가 수천 건이 나왔다. 이를 표본으로 활용하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형태분석말뭉치 검색결과 나온 84건을 표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종(2007년 배포판) 원시구어말뭉치>는 90개 <이민 준구어 형태구어말뭉치>는 84개, 총 174건을 통사론적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으로 삼는다.

문장의 유형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문장 형식을 가리키는 문법 범주이다.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종결 어미 혹은 문말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보조사 ‘이요’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어미 없이 억양과 앞 뒤 문맥으로 문장의 유형이 결정된다. 조사 ‘요’는 ‘수지가 밥을 먹어요.’(평서문), ‘수지가 밥을 먹었어요?’(의문문), ‘빨리 밥 먹어요!’(명령문), ‘우리 밥 먹을까요?’(청유문), ‘밥이 참 맛있네요!(감탄문)’와 같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요’는 ‘냉면 1인분이요(평서문)’, ‘냉면 1인분이요?(의문문)’와 같이 평서문과 의문문만 사용할 수 있다.

평서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이다. 조사 '이요'는 평서문에 사용할 수 있다.

(42)

가. 여자1 : 어머 따님들하고도 이런 활동도 하시나봐요?
여진 : 한 달에 한 번이요.

(오수연, 네 자매 이야기 1화, MBC,,2006)

나. 봉희 물 줄까 쥬스 줄까/ 기정 물이요.

(임성한, 보고또보고 11-20화, MBC, 1998-1999)

다. 참 느희 얼루 이사했니? / 사당동이요

(임성한, 보고또보고 01-10화, MBC, 1998-1999)

라. 아주머니, 여기 해장 둘이요!

(김정수, 그대그리고나 21화, MBC, 1997-1998)

마. 네.,…아, 누나… 아뇨, 아직이요… 핸드폰도 연결이 안 되고 호출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바. 양파는 빼고 머스타드만이요!

(손은혜, 어느 멋진날 1화, MBC, 2006)

(42)는 선행어와 조사 '요' 결합형이 평서문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42가)는 의존 명사 '번', (42나)는 일반 명사 '물', (42다)는 고유 명사 '사당동', (42라)는 수사 '둘', (42마)는 부사 '아직', (42바)는 조사 '만' 뒤에 조사 '이요'가 결합하여 정보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평서문으로 사용되었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본고는 의문문을 화자가 궁금한 내용을 청자에게 질문을 통해 대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의문문, 상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그 말을 되풀이해서 묻는 메아리 의문문으로 나누었다. 의문문 유형 중 조사 '이요'가 어떤 유형에 주로 쓰이는 지 파악하기 위해 표본 174건 중 의문문 67건을 추출하여 유형을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 '이요'가 일반의문문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보자.

일반의문문은 화자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가부(可否) 의문문(판정의문문), 둘 이상의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응답하기를 요구하는 선택의문문, 설명의문문은 '몇, 얼마, 누구' 등의 의문사[7]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으로 나뉜다. 조사 '이요'는 선행어와 결합하여 일반의문문과 메아리 의문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의문문부터 살펴보자.

(43)

7) 의문사는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말이다. 설명의문문에는 의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문사로는 이은섭(2005:71)에 제시된 의문 대명사는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의문 수사는 '몇', '얼마' 의문 관형사는 '무슨', '어느', '어떤', '어인', '어쩐', '웬' 의문 부사는 '어떻게', '어찌', '왜' 의문 동사는 '어떡하-', '어찌하-', '어쩌-' 의문 형용사는 '어떠하-'가 있다.

가. A: 이제. 아드님만 둘이요?
B: 네, 아들만 둘이요.

(아침마당, KBS2, 1995-02-20)

나. A: 제가 56년 12월 7일생이거든요.
B: 음력이요?
A: 네.

(한밤의 데이트, MBC 1995)

다. A: 어떤 연기,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B: 지금까지 했던 작품이요?
A: 예.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4-12-03,)

(43)은 (43가)는 수사 '둘', (43나)는 명사 '음력', (43다)는 명사 '작품'과 조사 '이요'가 결합하여 화자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가부의문문(판정의문문)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의문문 용례 67건 중 가부의문문의 용례는 11건이었다. 한국어의 의문문은 의문사나 의문어미 또는 문말 억양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조사 '이요'는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어미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의문 어미 없이 문말 억양으로만 의문문이 구성된다. 가부 의문문은 문말 억양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택의문문도 마찬가지다.

(44)
가. 현진: 괜찮아요. 그냥 물 마실래요.
태하: 물이요? 찬물이요, 더운물이요?
현진: 태하씨... (태하 흘겨보고, 종업원 향해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그냥 차가운 생수 주세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22회, 드라맥스, 2016)

나. 여학생: (하교차림으로 다가오며) 오늘은 또 누군데요? 가가멜이요 아지라엘이요?
채 원: (흥분해서) 가가, (하다가) 교장선생님

(배유미, 로망스 1화, MBC, 2002)

다. 영 숙: 아들이요 딸이요?
박 비: ...아들이요....인제 갓난쟁이예요 한달됐습니다.

(임성한, 온달왕자들 02화, MBC, 2000-2001)

(44가)는 '찬물'과 '더운물', (44나)는 '가가멜'과 '아지라엘', (44다)는 '아들'과 '딸' 뒤에 조사 '이요'가 결합하여 둘 이상의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응답하기를 요구하는 선택 의문문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선택의문문은 의문문 표본 용례 67건 중 해당 되는 것이 없어 <이민 준구어 원시말뭉치> 용례를 다시 분석하였다. 원시말뭉치 용례에서도 선행어와 조사 '이요' 결합형이 선택 의문문으로 사용된 용례는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사 '이요'는 설명의문문에서도 사용 될 수 있다. 이때도 의문 어미는 없고, 의

문사와 의문 억양으로 의문문이 구성된다. 설명의문문의 경우 문말 억양이 약간 내려간다.

(45)

가. 누구랑이요?
조민주 사장 내외랑요...

(박정환, 노란손수건 36화, KBS1, 2003)

나. 고등학교 몇 학년 과정이요?
일 학년 …… 삼년 과정인데, 일 학년 이예요.

(아침마당, KBS, 1995-02-20)

다. 재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다현: 무슨 약속이요?
재인: 끝낸다고 하기 없기야.

(현고운, 1%의 어떤 것 12회, 드라맥스, 2016)

(45가)는 의문 대명사 '누구', (45나)는 의문 수사 '몇', (45다)는 의문 관형사 '무슨'이 쓰여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의문사가 쓰인 문장의 문말에 어미 대신 조사 '이요'가 붙어 의문문을 완성하고 있다. 의문문 표본 67건 중 설명의문문의 용례는 5건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 '이요'는 선행어 뒤에 붙어 모두 일반 의문문으로 사용 가능하다.

메아리 의문문은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그 말을 되풀이해서 묻는 의문문이다. 메아리 의문문은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했거나, 상대가 말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그 내용이 의외의 사실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다. 조사 '이요'는 선행어와 결합하여 메아리 의문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46)

가. A: 어제 잠깐 내린 눈 봤어요?
B: 눈이요? 봤어요.

(김승현, 허수경의 여성시대 1,2부, MBC, 1996-03-14)

나. A: 근데 이 떡을 최지원씨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B: 떡이요? 저는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쪄 먹든지, 아니면은 또 아이들 떡볶이 같은 거 해주던지 그래요.

다. A: 한 육백 번 정도요.
B: 육백 번이요?

(김승현, 손숙의 여성시대 3,4부, MBC, 1996-03-07)

라. A: 이제까지 살아오신 결과 사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 사랑 아닌가요.

A: 사랑이요?

(김한길과 사람들, MBC,1994-12-04,)

마. A: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도서방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인제 이렇게. 책 보는 곳이죠.
B: 아 해놓고 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A: 예. 가져가시면은 십일동안.
B: 십일이요?
A: 예. 십일동안 읽어 보시고. 아 그리고 한 책에 한번 사백 원입니다.
B: 사백 원이요?

(아침만들기, MBC, 1995-03-07)

바. A: 그래서 금년 하기 휴가 때는, 꼭 둘만의 여행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B: 네, 둘만의 여행이요?

(남자를 위하여, 1995-01-09)

사. 해미: 임신이시네요.
여자환자: 임신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 MBC, 2006-2007)

아. 해미: 그럼 이 수리비는 받는 걸로 하구요 같이 저녁이나 드시죠?
용욱: 저녁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17, MBC, 2006-2007)

(46)은 조사 '이요'가 선행어와 결합해 메아리 의문문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말뭉치 의문문 표본 용례 67건 중 조사 '이요'가 메아리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51건으로 의문문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정리하면 의문문 표본 용례 67건 중, 가부의문문은 11건, 설명의문문은 5건, 메아리 의문문은 51건이었다. 이를 통해 조사 '이요'가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는 메아리 의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을 파악했다.

7. 결론

본 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본고는 실제적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분포와 변이형을 조사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조사 '이요'가 조사 '요'의 자유변이형임을 밝히고 조사 '이요'의 분포 환경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본고는 조사 '요'와 '이요'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 말뭉치> 2007년 배포판, 2020.11월 수정판 그리고 영화, 드라마, 시트콤 대본을 모아놓은 <이민 준구어 말뭉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구어 말뭉치 용례를 분석했다.

3장에서는 사전과 개론서에 정의된 '요'와 '이요'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요'와 '이요'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요'를 조사로 정의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일하므로 본고에서는 조사 '요'와 '이요'의 개념을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른다.

4장에서는 구어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여 조사 '요'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조사 '요'를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요1과 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요2로 나누어 분포를 살폈다. 요1은 해체 종결어미, 일부 하게체 종결어미 '-는가', '-은가', '-던가', '-ㄴ가', '-나' 뒤에서 분포하고, 요2는 대부분의 연결어미, 체언, 부사, 조사, 감탄사 뒤에서 분포한다.

5장에서는 조사 '요'의 교체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 '요'는 이형태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는 조건변이형과 이형태들이 서로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나타나는 자유변이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요'의 조건 변이형으로는 [요], [뇨], [료]가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는 [요]로 소리난다,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는 연음되거나 ㄴ첨가로 [뇨]로 소리난다. 연음하여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이나 구어에서는 ㄴ첨가 현상으로 [뇨]로 소리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ㄹ'로 끝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는 수의적으로 [료] 또는 [요]로 소리 난다. 연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지만 실제 연음되어 발음하는 용례는 찾지 못했다. 구어에서는 수의적으로 ㄴ첨가 후 유음화 현상으로 [료]로 소리나거나 [요]가 그대로 소리가 났다. '요'의 자유변이형으로는 '이요'가 있다. 조사 '이요'는 특정 환경 조건에서 조사 '요'와 공존하며 자유롭게 분포한다.

6장에서는 조사 '이요'가 분포 가능한 환경적 조건을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요'는 자음으로 끝나는 선행어 뒤에 결합한다는 음운론적 조건을 가진다. 그리고 '이요'는 체언과, 부사, 보조사 '만' 뒤에서 분포하는 형태론적 조건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통사론적 조건으로는 문장의 유형 중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온다. 의문문 중에서도 일반의문문과 메아리의문문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의문문 표본 용례 67건 중 메아리 의문문이 51건으로 '이요'가 의문문에서 사용될 때는 메아리의문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이요'의 분포와 특징은『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조사 '요1'과 관련이 없고 종결어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조사 '요2'와 관련이 있으므로 조사 '이요'는 종결어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조사 '요2'의 변이형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분석 결과이다. 본고는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 조사 '요'와 '이요'의 차이점을 밝히고 조사 '이요'의 분포 환경을 정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조사 '이요'는 조사 '요'의 변이형이고 종결어미 외 형태소와 결합하는 요2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먼저, 조사 '요'의 조건변이형으로는 [요], [뇨], [료]가 있고 자유변이형은 '이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를 발음할 때 배운 대로 발음 규칙에 따라 연음해서 발음할 것이다. 이 경우 교수자는 연음된 것이 표준 발음이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ㄴ첨가, ㄴ첨가 후 유음화로 [뇨], [료]로 발음한다고 알려주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 '요'와 '이요'가 서로 다른 형태소이지만 조사 '이요'가 '요'에 포함된 관계임을 알려주고 조사 '요'를 교육할 때 '이요'를 함께 가르치면 '요'와 '이요'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요'와 '이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을 제시한다.

<표1> 조사 '요'와 '이요' 비교

	요	이요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1」((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게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2」((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따위의 뒤에 붙어)) 주로 발화 끝에 쓰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음운론적 조건	제약 없음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분포
형태론적 조건	「1」해체 종결어미, 일부 하게체 종결어미 (-는가, -은가, -던가, -ㄴ가, -나) 뒤 「2」연결어미, 체언, 부사, 조사, 감탄사 뒤	체언, 부사, 보조사 '만' 뒤
제약	부사 '및', '안', '못'은 결합 불가능	
통사론적 조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사용	평서문, 의문문에 사용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조사 ‘요’와 ‘이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요’는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요1과 그 외 요소와 결합하는 요2로 구분된다. ‘요’와 ‘이요’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분포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조사 ‘요’는 음운론적 조건에 제약이 없다.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 상관없이 자유롭게 분포 가능하다. 반면 ‘이요’는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만 분포할 수 있다. 형태론적 조건으로는 ‘요’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체언, 부사, 조사, 감탄사 뒤에 붙을 수 있다. 반면 ‘이요’는 체언, 부사, 보조사 ‘만’ 뒤에만 붙을 수 있다. 통사론적 조건으로 ‘요’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다섯 가지 문장의 유형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이요’는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요’가 ‘요’보다 제약이 훨씬 크다. 그 밖의 조사 ‘요’의 분포 제약은 조사 ‘이요’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의 조사 ‘이요’ 사용에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 학습 교재의 조사 ‘이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한국어 학습자와 교수자들에게 본고의 정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육 문법(자료편)』, 한글파크.
고영근·구본관(2008),『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Ⅰ』, 집문당.
김유범(2001),『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미(2019),「한국어 통용보조사 '요'의 기능 분석에 따른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대(1883), 「{요} 청자 존대법(聽者 尊待法)에 대하여」,『加羅文化』2, 129-167면.
남수경(2001),『'요'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병우(2002),『화용표지 '- 요'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현식(1999),『국어 문법 연구』, 역락.
배주채(1996),『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유필재(2000),「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윤석민(1994),「-요의 담화 기능」,『텍스트 언어학』2, 459-484면.
이관규(2002),『학교 문법론(개정판)』, 도서출판.
이관규(2005),『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李尙馥(1976),「{-요}에 대한 연구」,『연세어문학』, 7-8, 209-229면.
이소정(2019),「한국어 교육에서의 보조사 '요'의 교육 내용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이영제.「특수조사 들, 요, 좀의 통사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이은섭(2005),『현대 국어 의문사의 문법과 의미』, 태학사.
이익섭·채완(1999),『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이정민·박성현(1991),「'-요' 쓰임의 구조와 기능 - 문중 '-요' 의 큰 성분 가르기 및 디딤말 기능을 중심으로」,『언어』16.2, 361-389면.
이혁화(2002),「교체에 대하여」,『형태론』, 4.1, 59-80면.
이현희(2014),「'X만 하다' 구성의 문법사」, 언어학회 발표문, 1-13면.
전태희(2017),「'요'의 분포·기능·범주에 대한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창(2010),「조사 '요/이요'의 교체 원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4-124면.
최정숙(2003),『학교 문법에서 '해요체'의 '요'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최재희(2004),『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최형강(2014),「'이요'의 실현 양상과 주제적 의미」,『한국어의미학』44, 291-311면.
최형기·조창규(2013),『예비교사를 위한 국어 문법 교육 강의』, 태학사.
최형용(2016),『한국어 형태론』, 도서출판 역락.
허웅(1975),『우리말 옛말본』, 샘 문화사.

Mehmet Demirezen(2019), *The phonological structures of open and close junctures*

in utterances for English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1 no.1,* pp.197-208.

<Abstract>

The Distribution and Variants of the Particle 'yo' in Korean

Kim Yu-R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yo’ and ‘iyo’ in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based on actual language data and to clarify the distribution conditions of ‘iyo’.

The content discussed in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1 reveal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and explained the research method.

In Chapter 2, we researched the existing studies on the particle ‘yo’ and ‘iyo’. Although the particle 'yo' and 'iyo' are forms of honorifics used a lot in Korean conversation,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education.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yo’ and ‘iyo’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education, and tries to analyze them including a phonological point of view that has not been dealt with in the previous discussion.

Chapter 3 arranges the concepts of 'yo' and 'iyo', which defined lexically, and sets the definitions and scope of 'yo' and 'iyo'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In Chapter 4, the distribution of the particle 'yo'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usage examples of the spoken corpus. Since the ‘yo’ is mainly used in spoken language, we use the colloquial corpus example. For the spoken corpus, <Sejong Corpus> and <immigrants’ spoken Korean language corpus> are used.

In Chapter 5, we studied the replacement pattern of the particle ‘yo’. The dimorphic forms of the investigation ‘yo’ were divided into conditional variants, which appear under different conditions, and free variants, in which variants appear freely under the same conditions. Conditional variants of ‘yo’ include [yo], [nyo], and [ryo], and free variants include ‘iyo’.

In Chapter 6,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the particle 'iyo' can be distributed were divided into phonological conditions, morphological conditions, and syntactic conditions.

Finally, in Chapter 7, the discussion discussed above was synthesized and organized, and based on this, teaching methods for the particle 'yo' and 'iyo' were proposed.

I think that the arrangement in this paper will help to reduce confusion in Korean learners' use of 'yo' and 'iyo'.

Key words: Free Variation, 'yo', 'iyo'

부록은 조사 '이요'를 포함한 말뭉치 용례 174건의 용례 중에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던 용례를 수록하였다. 구어에서 조사 '이요' 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을 수록한다. <부록1>은 조사 '이요'가 포함된 의문문 말뭉치 용례를 모아놓았고, <부록2>는 조사 '이요'가 포함된 평서문 말뭉치 용례를 모아놓았다. <부록2>는 평서문 말뭉치 용례 중 한국어 학습용 어휘 A등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조사 '이요' 결합형 용례를 모았다.

<부록 1>

	조사 '이요'의 의문문 말뭉치 용례	출처
1	A:건축이라고 그러면 조금은 문화쪽이랑 관련이 있지않나 그냥 느낌이 그래요. B:건설하고 건축이요?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전망대, 98-07-29
2	어머니:내일 세 들어오기로했다. 창희:내일이요?	최성실, 육남매 9회, MBC, 1998
3	곰보: 멀쩡한 양은 그릇을 찌그려뜨리가꼬 나오래질 않나? 라디오구 시계구 몽땅 들구 나오래가 다 빼앗아 비릿다 아이가? 저눔아가 동네 아들을 몽땅 도둑놈을 만들어삐릿다 이 말이다. 숙희: 도둑이요?	최성실, 육남매 4회, MBC, 1998
4	어머니:돈 필요한 거 없니? 창희:돈이요?	최성실, 육남매 4회, MBC, 1998
5	A:근데 이 떡을 최지원씨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B:떡이요? 저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쪄먹든지, 아니면은 또 아이들 떡볶이같은 거 해주던지 그래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2-04
6	A:2월말일쯤 2월말이면, 아유. B:2월말이요? 빨리 결혼하셔야 되는데.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1-07
7	곰보:니 시험지 백 점 맞아오마. 내 텔레비전 실컷 보게 해줄끼다. 짱구:백 점이요?	최성실, 육남매 12회, MBC, 1998
8	A:올 겨울은 갈색이나 보라색 계통으로 보라색 계통의 색상을 이용하면은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B:보라색이요? 여기 이런 보라색이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4-12-03
9	A:올 겨울은 갈색이나 보라색 계통으로 보라색 계통의 색상을 이용하면은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B:보라색이요? 여기 이런 보라색이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4-12-03
10	국진: 또…날 잘 알아주고…그리고 또 없으면 허전하고… 선아:김효진선배님같은 분이요?	테마게임 139회, 단짝, 작자확인 불가, 1998
11	종철:쥐? 그거 니가 나한테 선물 한 거 아니야? 준희:선물이요?	최성실, 육남매 9회, MBC, 1998
12	A: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저희가 좋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포기하면 알았죠? B:무슨 선물이요?	여성시대 1,2부 MBC, 1996-05-01,

13	A:예. 야, 이 아슬란 요법이라는 거요. B:그게 무슨 요법이에요? A:영원한 청춘을 찾는 여행. 동유럽 루마니아. 루마니아 관광 홍보 책자 한편에 적힌 이 한 그 의학 연구소를 선전하는 글귀인데. 노화 방지 특효가 있다는 아슬란 요법. B:아슬란 요법이요?	출발 서울 대행진 3부, 1996-05-26
14	김사범:이름이뭐냐? 준희:내 이름이요?	최성실, 육남매 20회, MBC, 1998
15	A: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이게인권보장의제1장1절아닙니까? B:인권이요? 그런거 다 생각하면서 흉악범을 어떻게 잡습니까?	단소리 쓴소리, 명쾌한, 다수인물, 1995
16	A:저. 정말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올해 나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B:30대 중반이예요. A:30대 중반이요?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4-12-03
17	A:어디서하셨어요? 그게중요하죠? B:커피숍이요. A:커피숍이요?	한밤의 데이트, MBC, 1995
18	A: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웃고, 그 다음에 포옹을 자주 하래요. B:포옹이요?	아침만들기, MBC, 1995-01-09
19	A:안눌렀는데, 아까 화면 못 보셨죠? B:부인 표정이요? A:근까, 부인의 표정으로, 딱 눈을 뜨는데, 난 그눈보고 누를 생각을 못했어요.	남자를 위하여, 95-01-09
20	A:두 분 다 고민이 많으신데 제게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B:해결책이요?	단소리 쓴소리, 명쾌한, 다수인물, 1995
21	A:그래서 오늘 마련한 게요, 떡과 호두맛탕이라는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B:떡과 호두맛탕이요? A:예.	선택 토요일이 좋다, MBC, 1995-02-04
22	진만:인사드려. 강선생 부친되신단다. 다현:예? 강선생님이요? 아-안녕하세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8회, 드라맥스, 2016
23	E전화벨소리 해미:(전화받는)여보세요? 네 경찰이요? 무슨일이신데요? 나문희씨요...? 저희 시어머님인데..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8회, MBC, 2006-2007
24	문희:옴마 나 왜 그러냐? 혹 노망나는거아냐? 준하:노망이요.....?(눈똥그래지며) 그럼 아버지가 치매.....?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회, MBC, 2006-2007
25	민용: (전화통화) 네 와인이랑 꽃바구니도 서비스 되죠? 네 좀 준비해주시구요, 또 뭐가 돼요? 커플 노천탕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3회, MBC, 2006-2007
26	재인: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다현씨 나랑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벌써 도장부터 꽝꽝찍었거든요. 선우:도장이요? 혹시...혼인신고하셨어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6회, 드라맥스, 2016

27	#26교무실 경은:독후감이요?(기겁한얼굴) 다현: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숙제. 좋은 책 읽고 독후감써오기.	현고운, 1%의 어떤 것 3회, 드라맥스, 2016
28	문희: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민정:돈이요? 문희:아 내가 좀 급하게 돌려쓸데가 있어서.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8회, MBC, 2006-2007
29	순재:이 자식이 이거! 너 내지갑에서 돈 갖고갔지? 윤호:에? 무슨 돈이요? 전 몰라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8회, MBC, 2006-2007
30	문희:너 혹시 돈 좀 있니? 신지:돈이요? 얼마나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8회, MBC, 2006-2007
31	규철:특히! 나가서 말 조심해. 괜히 다현이한테 망신 당하지말고. 재인:(너무크지않게코웃음친)망신이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3회, 드라맥스, 2016
32	민정:문 닫으라니까 뭐해? 윤호:(웃으며)어느 문이요...? 민정:어느 문이라니?!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7회, MBC, 2006-2007
33	교감:학생, 정신없는 와중이었겠지만 바바리맨 인상착의 기억 안나나? 소연:바바리맨이요? 못 봤는데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11회, MBC, 2006-2007
34	순재:일대일 상황에서 상대방을 아주 박살을 내는 뭐 그런 건 없어? 민용:박살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1회, MBC, 2006-2007
35	재인: 누가 속이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속인건 당신이잖아. 이거 왜이래. 사기꾼은 다다야. 다현: 사기꾼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는데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12회, 드라맥스, 2016
36	문희:한 삼백.. 민정:삼백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8회, MBC, 2006-2007
37	전화벨소리씬/38다용도실(N)민호환호하며뛰쳐나가고순재가전화받고있다. 순재: 네 이민용선생이요? 네 맞는데요.. 학교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6회, MBC, 2006-2007
38	순재:즉 명현현상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민정:명현현상이요? 순재:좋아지려고 잠시 더 증상이 악화된다는 뜻인데.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5회, MBC, 2006-2007
39	여자환자:정말 확실한가요? 여기 선생님도 소화불량이라고.. 해미:소화불량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회, MBC, 2006-2007
40	민정:뭐 좀 찾느라구.. 민용:혹시 수첩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1회, MBC, 2006-2007
41	신지:저 시청각실이 어디에 있나? 민호:시청각실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12회, MBC, 2006-2007
42	재인:유경씨 나 없다구 그래요. 유경:눈치보며 검은 전화기들고. 실장님이요? 회의중이신데	현고운, 1%의 어떤 것 1회, 드라맥스, 2016

43	재인: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심술부릴게 아니라... 다현:심술이요?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에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7회, 드라맥스, 2016
44	재인: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다현:무슨 약속이요? 재인:끝낸다고 하기없기야.	현고운, 1%의 어떤 것 12회, 드라맥스, 2016
45	순재:얘 이 사람 어디갔냐? 해미:어머님이요? 개성댁아주머니 면회가셨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4회, MBC, 2006-2007
46	형준:혹시 이규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현:이규철이요? 우리 반 애들중에는 그런 애가 없는데...	현고운, 1%의 어떤 것 1회, 드라맥스, 2016
47	해미 : 자 그럼 무엇보다도 서민정 선생의 생각이 중요할텐데요, 어렵게 입수한 다음 화면을 보시죠. 화면 보는데 앞씬 까페에서 추적 60분의 몰래카메라간지로 테이블 밑에서 찍은 동영상 나오는. 민정의 다리와 몸은 보이고. 얼굴은 교묘하게 짤려있다민정의 말이 자막과 함께 나오는 민정OFF 이선생님이요? 외모야 완벽하시죠. 브래드 핏트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7회, MBC, 2006-2007
48	해미:임신이시네요. 여자환자:임신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3회, MBC, 2006-2007
49	다현: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 선우:정말이요? 그럼 그 남자랑 아무 일 없는거에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6회, 드라맥스, 2016
50	민정:정말 신지랑..접으셨어요? 민용:네. 민정:정말 정말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4회, MBC, 2006-2007
51	사장부인 : (영어) 네 정말이요? (영어) 도우미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길래. 어머 큰 실수를 했네!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7회, MBC, 2006-2007
52	이형사: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서 이형삽니다. 문희:아유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이요? 네네. 갈께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3회, MBC, 2006-2007
53	재인:저 먼저 퇴근합니다. 부장:퇴근이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4회, 드라맥스, 2016
54	약사:(전화하는)네 돈이 안나와요. 아니 무슨 수를 써도 안돼요. 기사 분 어디 가셨는데요? 한시간이요?(막고) 담당기사가 없어서 한 시간 기다리라는데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8회, MBC, 2006-2007
55	태하:한주화학이요? 혁주:아니 그 집딸을 재인이가 왜 만난데요? 그 닥터는 어쩌고?	현고운, 1%의 어떤 것 11회, 드라맥스, 2016
56	순재:이번 기회에 호신술이나 한 번 배워볼까 하는데.. 민용:호신술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 거침없이하이킥 21회, MBC, 2006-2007

<부록2>

	조사 '이요'의 평서문 말뭉치 용례	출처
1	떡 사세요! 따끈따끈한 시루떡이요!! 떡 좀 사세요!!! 떡이요!!!	최성실, 육남매 8회, MBC, 1998
2	다음 질문하실 분이요.	대통령 당선자-국민과의 대화, 98-01-18
3	김사범: 넌 몇 살이냐? 준희: 열세 살이요.	최성실, 육남매 20회, MBC, 1998
4	네.,…아, 누나… 아뇨, 아직이요… 핸드폰도 연결이 안 되고 호출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김지수, 영웅신화 17회, 1998
6	여기 쟈스민 티 두 잔이요… 저 여기요, 와인 두 잔이요.	김지수, 영웅신화 18회, 1998 영화 ...ing
7	잠깐이요… (적으며) 입니다.	최성실, 육남매 4회, MBC, 1998
8	젊은 날의 커크 더글라스 같아요, 아니, 정말이요, 아주 미남 형이시고요, 아무 옷이나 다 잘 어울리는 분이신데, 근데 이렇게 변신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하는 말이 대충 아 정말 신혼 기분이에요.	아침마당 토요와이드, 1995-01-07
9	A: 몇 학년이에요? B: 육 학년이요.	또 하나의 문화, 1995-06-16
10	(민정이 급하게 김밥을 사는) 아줌마 2천 원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14회, MBC, 2006-2007
11	이거요? 곰발바닥 게임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31회, MBC, 2006-2007
12	네 그쪽이요. 이분이 노래하는 걸로 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26회, MBC, 2006-2007
13	네 명이요... 여기 해물탕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14회, MBC, 2006-2007
14	진만: 지금 몇시야? 준현: 아홉시 반이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12회, 드라맥스, 2016
15	엄마 밥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19회, MBC, 2006-2007
16	(다현 얼른 들고 있던 쇼핑백 건네주는) 규철 : ? 다현 : 사탕이요. 심심하실 때 드세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36회, 드라맥스, 2016

17	좋은 아침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34회, MBC, 2006-2007
19	짜장 둘 짬뽕 둘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36회, MBC, 2006-2007
20	순재: 야 너 어디가? 범: 화장실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31회, MBC, 2006-2007
21	다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 재인: 왜 없어. 돈! 돈이 최고야. 다현: 돈이요? 제일 중요한게 겨우 돈이에요 ? 재벌3세라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	현고운, 1%의 어떤 것 7회, 드라맥스, 2016
22	민정: 문 닫으라니까 뭐해? 윤호: 어느 문이요...? 민정: 어느 문이라니?!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7회, MBC, 2006-2007
23	재인: 그 사람들 작정하고 덤벼들면 김다현 선생 신분 알아내는 거 식은 죽 먹기야. 다현: 김다현 선생님이요. 재인: (퉁퉁거리며) 네.	현고운, 1%의 어떤 것 6회, 드라맥스, 2016
24	관계자1: 저 사모님.. 화장실이..? 문희: 아 이쪽이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11회, MBC, 2006-2007
25	여보세요? 네 경찰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나문희씨요...? 저희 시어머님인데..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8회, MBC, 2006-2007
26	네 그럴께요..지금이요.. 네...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12회, MBC, 2006-2007
27	아.. 꼭이요! 꼭! 놀러오세요~	방봉원, 송재정, 이소정, 이영철, 최정현,거침없이하이킥 26회, MBC, 2006-2007
28	(여기) 물이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3회, 드라맥스, 2016